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일 목요일 음 7월 26일 (3월)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25°C. 낮 최고기온은 27°C 내외로 전망된다. 비가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60% probability for rain and temperature forecast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6:08) and moonrise (00:15).

식중독지수 위험, 자외선지수 높음

Table for PM10 and PM2.5 levels, showing categories like '좋음', '보통', '나쁨'.

주간예보

Table for daily and 2-day forecasts: 내일 (24/27°C), 모레 (24/28°C).

월드뉴스

백신 의무화에 가짜 백신 증명서 활개

미국서 200달러에 판매

미국에서 가짜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를 판매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고 AFP통신 등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신 증명서를 기입하고 있는 의료진.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를 위조하고 구매한 혐의를 받는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제스민 클리퍼드(31)는 지난 5월부터 '안티백스맘마'라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약 250장이 넘는 증명서를 각 200달러(약 2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데이자 바클리(27)와 공모해 최소 10명으로부터 250달러(약 29만원)를 받고 뉴욕주의 백신 접종자 데이터베이스에 그들의 이름을 입력한 혐의도 받는다.

뉴욕주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백신 여권의 일종인 '엑셀시오르 패스'를 통해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외에 나머지 13명은 위조 백신 증명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일하는 필수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가짜 백신 증명서를 만들고 팔고 구매하는 행위는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URL.

목요일론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공학박사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팬데믹을 선언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2억1600만명이며, 사망자도 450만명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상황이 크게 변동적이고 불확실하며 복잡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과 공존해 나갈 수밖에 없다. 감염 확대를 최소화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려면 비대면·비접촉이 전제되는 언택트 사회를 만들어 가

선진국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 그리고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등 다양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으로 미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범용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NIAID(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은 모든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범용 백신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NIH(국립보건연구원)는 범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고 공고를 냈으며, 정부 여당은 관련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편성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제민간기구인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D)도 지난 3월 범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

다.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미국 일자리 계획,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방안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2021년 1월, 2단계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연구개발(R&D)과 제조, 사회기반 시설, 친환경 등 인프라 스택터에 2조 달러를 투자하는 '더 나은 재건회복 계획(Build Back Better Recovery Plan)'을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도로와 다리, 항구시설 보완, 인공지능(AI)과 생명공학, 배터리 기술, 태양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1년 3월말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n Jobs Plan)'으로 이름 붙여진 정책에는 인프라·제조업·연구개발(R&D)·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 향후 8년간 2조 20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 및 치료제 개발에 2.3

억 유로가 넘는 금액을 투자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경기부양 대책으로 총액 1300억 유로의 보정 예산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중 500억 유로는 미래 패키지(Zukunftspaket)로 연구개발 이노베이션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해 조성한 프로그램으로 유럽 및 독일이 최우선 과제으로써 시도하는 환경분야와 디지털화 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매달 수백만개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첨단 제조시설에 1억 파운드 이상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책으로는 인프라·제조업·연구개발(R&D)·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 향후 8년간 2조 20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 및 치료제 개발에 2.3

열린마당

벌초철 방역 수칙을 준수하자



고경학 제주시 한림읍

8월 휴가철 영향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에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가오는 제주 고유 풍습인 벌초철과 추석 연휴에도 전격적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9월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람이 멈추지 않는 한 연제는 대규모 감염 발생은 인지된 것이기에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때이다. 그러면 곧 앞두고 있는 벌초철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제주도는 제주 전통 풍습인 음력 8월 초하루를 전후한 벌초철을 앞두고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벌초는 가족 또는 문중 등 다수의 인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함에 따라 벌초를 목적으로 묘지에서 이뤄지는 모임에 한해 참여인원을 최대 8명까지 허용

하게 된다. 가족별초는 4명까지, 모듬벌초는 8명까지로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사적모임 기준이 적용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마스크 착용 ▷물·무알코올 음료 제외 음식물 섭취 금지 ▷벌초 후 뒤풀이 금지 ▷분당당 4명씩 나눠 작업을 해야 하며, 가급적 시간·날짜를 분산하고, 이동 시에도 4인까지만 차량에 탑승 ▷도의 거주자는 가급적 참여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도 3일전까지 PCR검사 후 음성 판정 받은 후 입도를 당부하고 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이젠 온 도민 아니 온 국민이 지쳐 있다. 별다른 위기감 없이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일부 사람들로 인해 불안과 함께 방역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런 공동체적 삶이 곧 '하나의 세상'인 것이다. '나하나 쯤이야'라는 이기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 손에 손잡고 코로나19를 빨리 퇴치해 보자.

그러하여 누구나 꿈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진정한 힐링을 만끽해 보자.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



고수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이와 함께 전반적인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즘같이 아침저녁 선선해진 환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 관리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 중 하나가 대상포진인데, 주로 신경절을 따라 피부상에 띠를 두른듯한 수포를 만들면서 나타난다. 흔히 갈비뼈나 얼굴 한쪽에 통증이 있는 띠 모양으로 발현되고 많은 사람들이 초기증상으로 환부에 통증이 있거나 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열, 두통,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병부위로부터 신경 손상이 심해지며 강한 신

경통을 유발한다. 대상포진은 50-60대 등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발병위험이 커지고, 고령층일수록 신경통이 확대돼 합병증까지 앓을 수 있다.

질환 특성상 재발도 잦아 예방차원에서라도 건강할 때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대상포진을 앓았던 유무와 상관없이 1회만 접종하면 된다. 만약 앓았을 경우에는 회복 후 6-12개월이 지난 후에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을 했다면 대상포진 발병 시 신경통의 강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만큼 가능한 권장시기인 50-60세에 접종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코로나 예방접종이 한창 이뤄지는 요즘, 다른 성인 예방접종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관심이 높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전반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개인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적기에 올바른 접종을 하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림종묘사 advertisement listing various types of ginseng (e.g., Yura, Gyeonggi, Gamyeong) and their prices,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한림종묘사 advertisement for '감굴' (Gamsul) products, listing types like Red Gamsul, Gamsul, and Gamsul, with prices and contact info.

한림종묘사 advertisement for '모든품종 감굴(묘) 분양' (All varieties of Gamsul seedling distribution), listing various types and prices.

한림종묘사 advertisement for '감굴묘목 아스미 4, 5년생' (Gamsul seedlings Asmi 4, 5 years old), listing types and prices.